

# 대한민국의 힘!...日 또 꺾었다

## 봉중근 - 윤석민 - 김광현 - 임창용 '철벽계투'

### 한-일 3차대전 승리 이끌어... WBC 4강 직행



한국 야구대표팀이 '속적' 일본을 제압하고 2회 연속 4강 신화를 작성했다.

한국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 승자전에서 선발 봉중근의 '배짱투'를 앞세워 4-1로 일본을 누르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기동력을 앞세운 한국이 초반부터 기선을 잡았다.

1회말 선두타자 이용규가 좌전안타로 진루에 성공한 뒤, 과감하게 2루를 훔치며 일본 내야를 흔들었다. 이어 정근우가 내야안타를 추가하며 무사 1·3루, 김현수의 땅볼로 선취점을 올린 한국은 일본의 실책과 김태균의 볼넷으로 만루 찬스를 얻었다.

추신수가 삼진으로 돌아서며 2사 만루, 6번 이진영이 좌전안타로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 들이며 "WBC의 사나이"임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한국은 이용규의 발을 앞세워 1회부터 3점을 쓸어 담는데 반해 일본은 중요한 길목에서 2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탄탄한 수비에 발이 묶여 힘들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한국은 5회초 무사 1·2루의 위기에서도 이와무라, 이치로, 가타오카를 땅볼로 요리하며 1실점으로 막은 뒤 8회말 볼넷 4개를 가지고 1점을 추가, 4-1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선발로 나선 봉중근은 5와 3분의1이닝 동안 3피안타 4사사구 1실점으로 마운드를 굳게 지키며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다.

봉중근은 철벽계투진과 함께 아시아에선 순위 결정전에서 일본에 완봉패의 수모를 안겨 준데 이어 이번 대회 세 번째 한일전에서도 역시 팀의 완투승을 이끌어 '일본 킬러'로 거듭났다.

대회 2라운드 2연승으로 4강 티켓을 거머쥔 대표팀은 20일 일본-쿠바전의 승자와 A조 1·2위를 다툰다. 순위결정전에서 이길 경우 23일, 패할 경우에는 2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준결승을 치른다. B조에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4강에 진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쳐볼 테면 쳐봐라! '배짱 兪' 석민



## '승리 주역' 本報 전화 인터뷰

"한 타자 한 타자 어려운 승부였고, 그만큼 좋은 경험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절묘한 슬라이더로 일본을 물리고 한국 대표팀의 4강을 이끌었다. 18일 한국과 일본과의 세 번째 격전. 늘 여유 만만인 윤석민도 이날 만큼은 비장한 표정으로 3-1로 앞서나가던 6회 1사에 마운드에 올랐다.

승리의 디딤돌이 된 윤석민은 "일본전인데 4강이 걸린 만큼 다른 경기때보다 긴장을 많이 했다"며 등관 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표정과 달리 침착하게 승부를 펼친 윤석민은 2와 3분의 1이닝을 3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4번 무라타에게 안타 2개를 내줬지만, 거포 체면도 잊은 채 엉덩이를 빼고 맞춘 치맛은 안타였다.

7회초 일본의 주전 포수 조지마와의 풀카운트 대결은 압권이었다. 풀카운트에서 윤석민은 시속 136km의 바깥쪽 꺾인 슬라이더를 던져 루킹 삼진을 잡아냈다. 분을 식이지 못한 조지마는 방망이를 타석에 버려둔 채 덕아웃으로 들어가 퇴장 명령까지 받았다.

윤석민은 "볼넷을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쳐볼 테면 쳐라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다"며 "별명을 '윤배짱'이라 해야겠다"는 농담으로 승자의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야간 경기라 자정이 넘어서야 숙소에 돌아왔다는 윤석민은 승리에 대한 기쁨과 큰 경험에 대한 흥분으로 피곤함을 잊었다. 윤석민은 "일본 강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했다"며 "이치로를 포수 플라이로 잡아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민은 "기분도 컨디션도 최고다"며 "꼭 메달을 목에 걸고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KIA의 또 다른 대표 이용규도 특유의 기동력으로 승부를 갈랐다. 1회초 다르빗슈를 상대로 선두타자 안타를 뽑아낸 이용규는 2번 정근우가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2루를 훔치며 일본을 흔들었다. 당황한 일본 수비진은 정근우에 내야 안타를 내주고, 송구 실책까지 하면서 무너졌다. 이용규의 발이 1회 3점을 만든 셈이다. KIA의 대표 선수들의 '만점 활약'이 만든 귀중한 승리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막을 테면 막아라! '뛰는 李' 용규

